

제 169 호

연중 제 6 주일

1976. 2. 15.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당신도 문둥이야!』

김 봉 희 신부

“뭘 걸레같은 인간? 너무 처참하고 불쌍해? 여보쇼 말 삼가 하라구? 진짜 썩은 건 누군데……”

지난 구라주일, 어느 청년들 대화속에 누군가가 내뱉듯이 쓰아부친 한마디가 자꾸만 가슴을 찌른다. “안 보이기 망정이지 정말 더 흉칙할꺼야……”

오늘 복음의 「나환자와 예수」 설화, 그전 <메세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기적 얘기라 하겠지만, 실은 우리 인간들이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깨달게 될 때 비로소 그 인간은 진리의 인간이 된다”는 깊은 교훈을 은연중에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느껴진다.

우리는 곧잘 나병환자를 꺼려하고 경멸한다. 그러두 더러운 죄악으로 만신창이가 된 검푸른 마음들, 그것은 그실 나환자 보다도 더욱 추한 우리네의 본 모습이 아닐까?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모를 자 없겠지만 정작 신(神)앞에 발가벗은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될라치면 아마도 천기증을 일으키고 까무러칠지도 슬하게 많으리라. 그런 가없는 존재, 한심한 인간들이면서도 속으로 잔뜩 썩어 문드러진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슬프다.

그러기 잠시, 정신없이 가던 길 멎고 떨어져 가는 내 신앙 새카맣게 명든 영혼, 위독한 자신을 한번 더 바라보자.

나병퇴치의 제일 첩경이 「조기발견 조기치료」, 그래 늦기 전에 방심 말고 우리도 이 죽음의 병, 죄의 치유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한시바삐 「구원주 예수」께로 나아가 무릎 꿇고 간청하자. 주께서 나창(癩瘡)을 씻어 주신 것은 그 무엇보다도 겸손되어 자신의 처절함을 바라보고 통절히 울며 부르짖은 그 진실된 신앙의 애소 아니더냐?! 「구하는 자에 구원이 있으리라……」

주여, 그러하오매, 내일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속절없이 웃고있는 나, 실마 하는 이 가련한 가슴들 속에 깨닫는 독한 아픔 한번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환자의 애달픈 호소 “주여 굽어보사 불쌍히 여기소서!”를 이제라도 꼭 한번 외칠 수 있게 인도하소서. 이미 병든 영혼이오니……아멘!

(김계 전주교회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가톨릭 기도서 P 347

(1) 개회식

□입당송 주여, 내 몸을 막아주는 큰 바위, 나를 살리는 굳을 성체되소서. 내 바위, 내 성체는 당신이시니 당신의 이름으로 난 이끌어 데려가 주소서.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레위기 13: 1-2, 44-46 경향잡지 p87)
불결한 사람은 홀로 영외에 살리라.

□찬미송 ◎ 당신은 내 피난처이시니 구원의 기쁨으로 나를 휘감아 주시리이다.

복되다 그 죄 사하여지고/그 리를 씻어준 이여/주께서 탕을 아니 돌리시고/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여 복되도다. ◎

□제2독서 (고린토 전서 10: 31-11: 1 성서 p 388)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큰 예언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느님 당신 백성을 찾아 주셨도다.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 40-45 성서 p 77)

나병을 씻고 깨끗해졌다.

신자들의 기도

1. 언제나 당신 사랑의 하나에로 모이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 모두가 당신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되게 은총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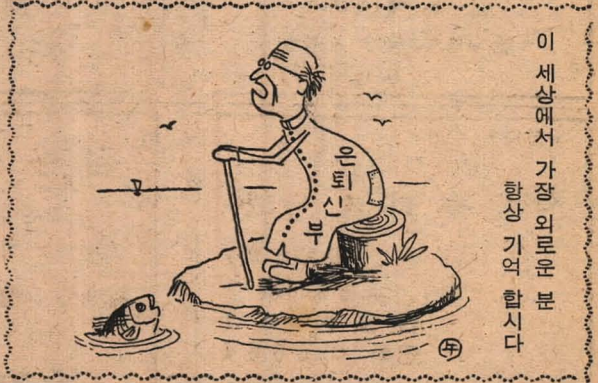
2. 주여! 우리는 문둥병자를 냉대하거나 적대시 하나 우리는 정신적으로 그이상 더 큰 못볼 병에 걸려있는 쌍한 자 많으니, 자비하신 주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고에 신음하는 우리 형제들을 당신 사랑으로 완전하여 지도록 은총 주소서. ◎

3. 언제나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여! 기억하는 이 없이 당신 품으로 돌아가신, 그리고 기억하는 이들의 품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난 우리 형제들을 당신 품안에 들게 하소서. ◎

<3> 성찬의 전례 □ 봉헌 □ 성찬식

□영성체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으니, 그들의 소원이 넉넉히 채워졌느니라.

순정이 산책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분
함상 기억 합시다



순교자의 얼을 현양합시다

-교회 사료 수집 및 정리-

김 진 소 신부

제위 신부님, 수녀님, 사도회장님, 공소 회장님, 기관장님, 교형 자매 여러분!

이미 주지된 바와 같이 금년도 한국 천주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역점 사업중 하나는 한국 순교자들의 시성 운동과 현양사업입니다.

차제에 본 교구는 교구내의 순교사를 발굴하고 신앙의 유산을 수집 정리할 뿐 아니라, 순교자 기념관의 설립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순교자가 일개 가문의 조상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의 조상이듯이 한 가정과 본당 및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자랑스런 역사의 유산은 모든 교회가 소중하게 아끼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구의 각 가정과 본당과 단체에 깊이 소장되어 있거나 무심하게 버려지고 흩어져 있는 역사적 유물은 한데 모아서 순교자 기념관에 보존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이가 거룩한 조상들과 깊이 상접하여서 우리 혈관에도 그 피가 흐르고 있음을 깊이 의식하고 모범적 신앙의 체온을 전해 받기 위한 것 입니다.

전주교구 교회사 사료 발굴 정리반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사료 수집 및 1차 작업 계획을 발표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지도 바랍니다.

가. 교회사 사료 수집 내용

1. 문헌 및 기록류 (인쇄본 또는 필사본)
 - ① 각종 교리서, 신심서, 기도서 (1945년 이전)
 - ② 경향잡지, 가톨릭 청년, 가톨릭 소년, 가톨릭 조신, 기타 교회 간행 출판물 (1960년 이전)
 - ③ 각 본당 및 교회 약사, 전교사, 치명기
 - ④ 한국 교회사에 관한 국내의 서적 및 간행물
 - ⑤ 박해시대 또는 옛 교우간의 편지, 공적 서신, 교회 윤시, 교지 등 (1950년 이전)

- ⑥ 옛 신부, 주교들의 강론
- ⑦ 순교자 족보, 옛 교회 공로자들의 족보
- ⑧ 옛 교회 생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각종 사진 (1950년 이전)
- ⑨ 천주 가사 (신앙 교리를 알기 쉽게 작사한 노래 1950년 이전)
2. 유물: 1950년 이전
 - 목주, 성패, 교상, 상본, 등고상, 나팔, 종, 가구 기타
3. 제의 제구: 1950년 이전
4. 구전: 1950년 이전
 - ① 박해시 또는 6.25사변시 있었던 일화
 - ② 신자 생활에서 얻은 특수 체험담
 - ③ 기적적인 일화
 - ④ 기록되지 않은 채 신자들의 암기로 전해오는 천주 가사
 - ⑤ 오늘에 볼 수 없는 옛 신자들의 생활상에 관한 이야기

연락처: 각 본당, 교구청 사무국
 ※ ① 제공해 주시는 사료 중 복사가 가능한 것은 복사 후 본인에게 반환도 가능.
 ② 사료 수집, 발굴, 정리 작업에 봉사할 뜻이 있으신 분은 연락 바람.

다. 1차 작업 계획

- ① 교구청 고문서 및 비품 정리
- ② 6.25사변시 순교자 조사록 정리
- ③ 신앙에 감명을 주는 초대 교회 신심서 내용 소개 (숲정이)

(전주교구 교회사 사료 발굴 정리반)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역 중앙시장동
(전화 ② 4577)

교우들의 집단장은!

동양 페인트

현재 가격에서 10% 할인판매
(단 교우에 한함)

●전주 뇌병원 옆
전화 ②2765-5986

물 자 절약!

원질한 환봉, 파이푸 스텐
절단 판매 鐵工業 정밀가공
<푸레스, 절단 절곡 기타
중기계 공정으로>

군산시 장재동 145
(영진주철 옆)
明光植工 T 4427
라우렌시오

타자기 수리

전주 뉴 타 자 학원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노송동 605-1
원장 신승무(바오로)
전화 ② 6664

타자기수리, 취업알선, 수시검정

김용길 양복점

교우 여러분과 결혼 예물은
특별 염가 제공

재단사 정병준(정아우구스티노)
전주 중앙동 조흥은행 앞

전화 ② 3519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지 사진관(2층)

이삼범(필노리아노)
육교역 구 북부세관장 옆
전화 ② 6544

□양지쪽□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 철 식 (세바스티아노)

인간은 누구나 보다 나은 내일을 추구하기 마련이며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기를 갈망합니다. 더우기 우리 신앙인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일치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75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보내는 우리 신앙인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의 혁신의 해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 드립니다.

서울 혜화동 성당을 들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수도장에서 한 아가씨가 손을 씻고 있기에 몇시에 미사가 있느냐고 물어보니, 그 아가씨의 대답이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하며 5시미사가 있고, 반미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시각이 5분전 5시 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가씨의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하는 친절한 말에 무겁던 다리의 피로가 풀리며 정겨운 마음으로 그 아가씨와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의 본명은 크리스티나라고 합니다. 나는 크리스티나의 그때의 그말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뜻이 깊은 인사의 말입니까? 그때 그 아가씨가 「5시 미사가 있어요」 했으면 나는 이렇게 큰 감명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이말의 참 뜻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항상 돌보신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 이후로 내 마음의 처졌던 장막을 걷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해 주므로써 상대방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노력해 왔고 내 고향 함열 천주교회에 와서는 인사나누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주일아침마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성당입구에 서서 혼자 인사하기란 얼굴이 뜨겁고 멧적기도 했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몇몇한 일임을 자부하며 계속 인사를 해나가므로써 성당내의 모든 신자들과 이물어 질 수 있었으며, 길거리를 오가다 인사를 주고 받을 때는 마음이 즐거웠고 주일날 아침 성당 문앞에서 한구간의 인사말과 활짝 핀 웃음소리는 화기면 성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하던 인사나누기가 여학생들이 호응하여 산뜻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손에는 쥘정이를 들고 나누어 주고, 팔에는 사랑 믿음 희망이라는 완장을 차고 인사를 하는 모습은 정말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도 내가 지도했던 학생들이 주일마다 성당 문앞에 서서 인사를 나누는 걸 볼 때 마음 뿌듯함을 아니 느낄 수 없으며, 쥘정이 난을 통하여 각 성당 모든 학생들에게 솔선하여 인사나누기 운동을 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인사는 해서 기쁘고 반아서 즐거우며 또한 사랑을 실천하며 화기에애한 교회를 형성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악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고린토 전서 13장)

새로운 해를 보내는 모든 신자들의 마음에 사랑의 인사가 먼저 쌀쌀하고 불친절하다는 우리 교회의 불명예를 씻어 버리고 희망과 활기에 넘친 화기에애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각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주님 안의 사랑의 우리를 형성하도록 노력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합시다.

주여! 당신의 종들에게 뜻뜻한 희망과 용기를 주소서. 아멘
(진안 천주교 사무장)

요심이 (133) 김병오



* 감사드립니다 *

지난 2월 11일 고산 천주교회에서는 은퇴 신부님들을 위한 「초대의 자리」를 마련 기쁨과 웃음을 선사 하여 나이 많으신 신부님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14일 정월 대 보름날은 제 4 지구 주회로 「은퇴 신부님을 위한는 웃놀이」가 중앙 천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은퇴 신부님들을 위한 따뜻한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謹 賀 新 年

❖강가루표 양말 전북 직매점❖

쭈 쭈 네 집

□전주 풍남동 은행나무 골목 @6508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 JAR등

電話주문



즉시配達

綜合電子

전주 용궁 (舊 광주지행) 앞
김종환(원선시오) @ 3332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팝니다

세느의상실

최 춘 자 (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삼성전주센타 앞
2 - 6 2 1 9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공지 사항 ※

1. 제8차 공소 주일학교 교리교사 연수회 : (16<월>-19일, 가톨릭 센터)
2. 중·고등학생 교리 경시대회 (22일<일요일> 오후 2시-각 본당에서)
* 각 본당 감독과 교제와 철저한 감독 요망 (참가 학생 명단 급 우송 요망. 전동 천주교회로)
3. 22차 공동체 목상회 (22~24일)
4. 제2차 여성 푸르실로 (25<수>-28일, 가톨릭 센터)
5. 전주 중앙 신용 협동조합 제3차 정기 총회 : 15일<월> 오후 2시, 중앙성당에서
<정정> 「순정이」 168호와 교구청 공문 76-6호의 중·고등 학생 교리 경시대회 실시 일자 23일을 22일로
정정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 2월16일 오후 7시반. 가톨릭센터 에서

(중앙)

전화 ③3651 ③3874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김동상
사도 회장 이준용

1. 성모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2. 76년도 원아를 모집합니다 <성모 유치원>
3. 예비자 교리 실시 (많은 교우들의 협조 바람)
- ◎의산 농원 기금 회사한 분◎
김철수(진북동) 5,000원 김수산나(경원동) 2,000원
4. 주일학교 졸업식 : 오늘 공식미사 후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현
보좌 신부 고영광
사도 회장 조해형

1. 공아현(안드레아)신부님, 본당 주임으로 16일 부임
한백년(안토니오)신부님은 대전 갈마동으로 전임
2. 애령회 간부 월례회 : 공식미사 후
3. 재속 형제회 월례회 : 다음 주
4. 성당 신축 헌금 누계 4,505,427원
박종철 2천원, 중앙 강우시아 2,300원
5. 성당 의자 헌금 누계 1,429,330원
김상두 1만원, 조상구 3천원, 백육년 2천원,
임에릿다 1천원, 김복남 5백원
6. 전동 회사하신 분께 감사 : 18개 (18만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사도회 상임 위원회 : 공식미사 후
2. 청년회 : 공식미사 후
3. 청년 레지오 마리에 : 공식미사 후
4. 신용조합 제3차 정기 총회 : 16일 오후 7시
① 조합원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② 정기총회 준비 회의 : 오늘 공식미사 후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본당 사무 감사 : 18일 10시
사도회장단, 분과위원장들은 9시까지 모여 주세요
2. 교무금 납부 요망
3. 중·고생 교리 : 16-21일, 저녁미사 후(7시 반)
중 고 학생회장단 입후보자의 등록 바람
4. 신용조합 이사회 : 매주 토요일 저녁미사 후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김영길
사도 회장 박장훈

1. 남·녀 청년 특별 교리 : 16일 밤 8시부터
2. 중·고 학생 교리 : 14일부터 매일 밤
3. 본당 사무 감사 : 16일 오후 2시
사도회 임원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4. 선교 분과 위원회 : 오늘 공식미사 후
5. 신용조합 정기 총회 : 오늘 11시
6. 주일학교교리반 아동 가정방문이 헛되지 않게합니다.
부제님과 교리 교사들께 감사드립니다.
7. 미사 시간 변경 : 16<월>부터 밤미사는 7시 반
□주일 헌금 : 본당 22,535원, 상관 7천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한양윤
사도 회장 양윤모

1. 교미시움 월례회 : 오늘 오후 1시 반
2. 대의원회 : 오늘 저녁미사 후
3. J.O.C 1일 연수회 : 오늘 오전 9시-오후 5시
4. 성심 유치원 원아 모집 : 많이 오세요.
5. 교리 경시대회 대비 교리 : 16-21일 오후 5시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창계류인읍 신태인읍	청년 단합회	5,000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동	사도회	56,880원
		신용조합 정기 총회	26,660원			대의원 월례회	55,025원
		성모회 월례회	17,580원			신자 교리 재 교육	7,035원
제 2 지구	야동동 명동동 월동동	본당 사무 감사	8,150원	제 4 지구	중안동 노진동 부자동 서학동	성모회 월례회	68,518원
		전례 위원회, 청년회 전례 위원회, 성모회 대의원 회의	44,365원 34,320원 13,500원			애령회 간부 월례회	25,980원
제 3 지구	고금여삼 산산례	마리아 군단	5,570원	제 5·6 지구	무장진남순위	현내 공소 브레시디움 창립 구역 장회의 부 관공 실시	7,390원 4,835원 10,150원
		상임 위원회 월례회 부녀회 총회 사도회 월례회	16,460원 6,230원 15,485원			부당 연수회 참가자 보고바람	6,130원